

브라질 한국이민 50주년을 맞이하며

최금좌

I. 20세기 말 ‘모범적 이민집단’으로 부상한 재브라질 한인사회



봉헤치로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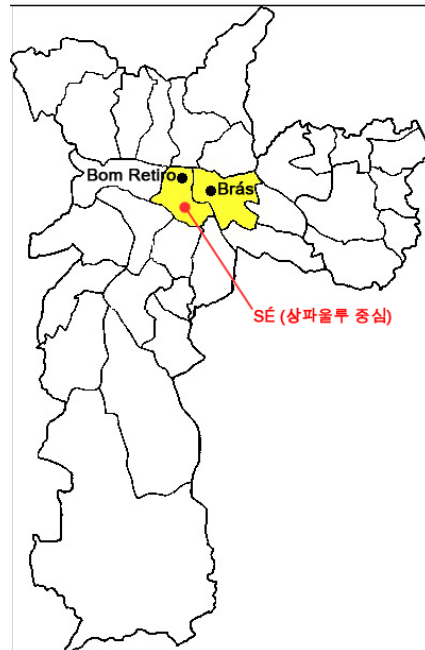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이민은 1963년 2월 12일 브라질에 도착한 집단 영농이민이다. 오늘날 브라질 한인사회의 구성원은 6만 명 정도이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한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우리나라 동대문시장과 같이 값싸고 질이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봉헤치로(Bom Retir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진작부터 브라질 의류업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단을 소비하는 시장 중의 하나로, 직물업계와 패션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하루 유동인구 7만 명인 봉헤치로는 브라질 지방의 소매상인, 파라과이나 볼리비아와 같은 남미국가의 도매상인, 카리브 해의 도미니카공화국, 미국의 자바(Jobber) 시장, 아프리카의 앙골라 도매상인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고 있다.

브라질 한인 중 98%가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메트로폴리탄 상파울루 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60%가 상파울루 시내 중심부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

한 봉헤치로 구(區)와 브라스 구에서 여성의류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¹⁾ 브라질에서는 재브라질 한인의 이러한 경제행위를 ‘물건을 정성들여 만들다’의 뜻을 가진 양재(洋裁, confecção)라 부르는데, 21세기 브라질 한인사회는 여성의류 생산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며, 브라질 의류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²⁾ 최근에는 전문화와 고급화에도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봉헤치로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포르투갈인, 스페인인, 이태리인, 유대인, 아랍인, 그리스인, 러시아인, 리투아니아인, 폴란드인, 일본인, 볼리비아인, 아르메니아인)이 ‘브라질식 조화’를 이루



상파울루 시 중심부인 세(SE)광장 부근에 위치한 브라스와 봉헤치로

1) 주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자료, 2011년 2월.

2) KBS 다큐멘터리 3일, 「따봉 브라질 - 패션거리 봉헤치로 한인 성공기」(2011년 1월 16일 방송. 정승우 PD).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브라질 한인들은 봉헤치로 상권의 65%(2,000 점포 중 1,300 점포)와 브라스 상권의 33.3% 이상을 장악하며, 브라질 여성의류의 60%와 직물의 40%를 생산하고 있다(재브라질 상공회의소, 2004년 자료).

며 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게 된 원인은 브라질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1888년 노예해방 이전부터 커피농장에서 일할 노동력을 정책적으로 유럽이민자로 대체했다. 따라서 산투스 항구에 도착한 유럽 이민자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상파울루 주 소재 커피농장에 분배하기 위해 봉헤치로에 이민자수용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산투스-상파울루 철도노선의 종점으로 1872년 루스 기차역(Estação de Luz)을 봉헤치로 입구에 준공했다. 루스역이 이민자의 도시 상파울루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봉헤치로는 18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저지대의 저소득층 주거지였던 봉헤치로에서 오늘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민족은, 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정착한 유럽인(포르투갈인, 스페인인, 이태리인, 그리스인, 유대인), 1960년대 한국인, 1990년대 볼리비아인, 그리고 2000년대 아르메니아인이다. 그런데 2010년 1월 상파울루 시정부는 브라질 한인사회의 경제활동 및 주거지역인 봉헤치로를 한인 타운으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한인이 브라질 사회에 적응과정에서 봉착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자 동시에 브라질 한인의 근면함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 브라질 한인사회의 경제적 중추 산업인 여성 의류업, 그리고 한인의 입지를 브라질 사회가 인정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것은 약 16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브라질 일본인사회의 상징인 일본인촌 ‘리베르다지(Liberdade)’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동양인 지역으로 봉헤치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봉헤치로의 한인 타운 지정과 2013년 2월 한국의 언론과 TV 및 라디오 방송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한국이민 50주년 기념행사소식은 브라질 사회 내에서 재브라질 한인사회의 위치를 다시 한 번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I. 도시 상파울루로의 이주와 여성의류업 ‘양재’의 선택

집단영농이민으로 시작한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은 영농이라는 당초의 목적 달성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원래 초기 이민자는 대부분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도시 출신이자 이북에서 성장한 기독교인이었다. 이들 초기 농업이민자의 1960년대 중반 도시 상파울루로 이주는 브라질의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늘날 브라질 한인사회의 양재 산업 발판을 마련하였다.

1) 1960년대 중반: 봉혜치로 진출

원래 브라질의 여성의류 업계는 봉혜치로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영역과 브라스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인 영역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한인은 이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생산과 유통 부문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민자에게는 한국에서 가져간 투자자본이 있었으며, 또한 가족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장 알맞은 분야를 찾아 선택한 것이 적중했기 때문이다.

2) 1970년대: 불법 체류자, 값싼 노동력 제공

1970년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한반도의 상황은 남미 행 불법 이민자를 양산시켰다. 불법한국이민자의 존재는 초기 한인사회 내에서 갈등요소였지만, 역설적으로 양재 산업을 둘러싼 경제적 협동과 단결의 요소였으므로 양날의 칼로서 기능했다.

3) 1980년대: 1.5세 흡수로 봉재 산업의 전성기

1980년대 브라질 경제 악화로, 브라질에서 정식으로 교육받은 대학 졸업자가 양재 산업 제품에 흡수되었다. 브라질 사회와 언어에 능한 이들 교포사회 엘리트의 업종전환은 여성 의류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III. 1990년 브라질의 시장개방 정책이 양재 산업에 끼친 영향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앞세운 브라질 시장개방 정책은 한국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증가시켜, 브라질 사회뿐만 아니라 브라질 한인사회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때 ‘개방의 시대’를 실감케 한 현상으로는 첫째, 한국 기업의 진출, 둘째, 봉헤치로에 한국과의 무역으로 수입한 물건을 파는 가게(오푸기 혹은 롯데와 같은 대형 한국식품점, LG 가전 대리점, 한국 비디오점)의 등장, 셋째, 브라질 한인사회 라디오 방송국 개국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브라질 시장의 개방은, 1990년 이전까지 원사(原絲)나 직물(織物)제조 등의 원자재 생산이나 또는 직물의 염색 분야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단지 의류 봉제업과 유통업에 국한되어 있었던 한인의 업종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 대(對)한국 무역 증대

1990년 브라질의 시장개방을 계기로, 많은 한인 남성이 한국과의 무역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한국기업의 진출과 맞물려 일어났던 현상으로 한국에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즉 개방시대 한인 남성은 그동안 여성 중심의 업계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뛰어넘어 양재 산업을 더 큰 규모로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 업종의 다양화, 계층분화, 지방 이주

브라질정부의 시장개방 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 이민 30년의 역사를 가진 브라질 한인사회의 직업 다양화와 계층분화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브라질로 새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양재 산업에서 실패한 사람은 봉헤치로에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주(州)의 수도로 이주하였다.

3) 한인 양재 산업의 전문화와 고급화

1999년 브라질의 경제위기로 브라질 한인은 면적 4km²의 봉헤치로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2010년 봉헤치로의 거주 한인 수는 약 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³⁾ 브라질 한인사회는 브라질 직물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고 봉헤치로 상권의 65%(2,000 가게 중 1,300 가게)와 브라스 상권의 33.3%를 장악하고 있다. 브라질 이민 전문가이자 사회역사학자 오스왈두 투르지(Oswaldo Truzzi)는 “한국인들은 누구의 밑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스스로가 중소기업의 주인이 되어, 브라질 사회에서 고용을 창출(직접 고용 4만 명과 간접 고용 10만 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이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2009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브라질 한인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자영업 76%, 학생 13%, 전문직 1%, 기타 10%이다.

4) 봉헤치로: 세계 최고의 한국 원단 소비시장

브라질 한인은 한국사람 특유의 부지런함과 감각으로 21세기 들어 생활터전인 봉헤치로를 세계 제1의 원단소비시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자바 시장 규모를 초월한 것이다.⁴⁾

3) 2010년 봉헤치로의 인구는 28,59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08년 대비 약간 상승한 수이다. 참고로 봉헤치로의 인구는 1950년대 45,880명, 1960년대 53,893명, 1970년대 45,662명, 1980년대 47,588명, 1991년 36,136명, 1996년 27,788명, 2000년 26,598명, 2008년 21,707명이었다. 참고로 브라스는 면적 3.5km²에 2010년 인구 26,587명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http://pt.wikipedia.org/wiki/Bom_Retiro

4) 2011년 2월 김형선(한국의 원단업체 Tex-Oasis 사장)과의 인터뷰.



리우 카니발에 참석한 싸이

IV. 브라질 한국이민의 다양한 50주년 행사

브라질 이민 50주년 10대 행사 중, 우리 사회의 시선을 가장 끈 것은 올해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브라질 카니발 축제였다. 왜냐하면, 리우 시와 상파울루 시 카니발 행렬에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이민 50년’이란 주제로 한국인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수 싸이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한국이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브라질 최초의 수도이자 아프리카 흑인들을 유입하여 브라질 문화의 사실이 된 살바도르 시에서 자신의 ‘강남스타일’을 ‘삼바스타일’에 접목시키는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행사는 모국인 한국에 대한 관심 증폭과 브라질 사회에 뿌리 내린 한인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국을 모르는 차세대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카니발은, 삼바 축구 카포에이라와 함께 브라질 문화를 상징하

는 아이콘으로, 세계적인 축제이다. 민정이 들어선 이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인류학자 다르시 히베이루(Darcy Ribeiro)의 창의적인 정책은 카니발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카니발은 오늘날 브라질에서 약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브라질 최고의 문화산업이 되었다. 카니발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즉 ‘성회 수요일’ 4일전인,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어 재의 수요일 아침까지 계속된다. 약 4박 5일 동안 치러지는 이 축제는 실시간으로 세계 우수 방송매체를 통해 중계된다. 생방송으로 시청자는 1억 6천만 명, 그리고 녹화방송으로 시청자는 전 세계 185개국의 25억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카니발의 경제적 효과는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2013년의 경우, 카니발 기간에 브라질을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90만 명, 부수적인 효과는 미화 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1) 한인회를 중심으로

2013년 이러한 브라질 카니발에 리우의 벨포트 삼바학교(Rio Inocentes de Belford Roxo, 3,600명)와 상파울루의 유니두스 데 빌라마리아 삼바학교(S.P. Unidos de Vila Maria, 4,000 명)가 한국을 주제로 삼아, 카니발 행렬의 제목을 ‘한강의 7개 물결’로 잡아, 한인들을 참가시켰다. 한인회는 본국인 한국정부의 지원과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내어, 율향기 초청공연(2월 2일 동양선교교회). 이민50주년기념식(2월25일, 한인성당). 상파울루 주 의사당 기념식(3월1일)를 치렀다. 그리고 미스코리아선발대회 겸 한류공연(3월24일), 한-브 양국 인사초청리셉션(4월), 학술세미나(5월), 이민사진전시회(후반기). 한국전통상징물건립(연중) 등의 계획도 실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브라질 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교포동정소식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계획이 6개월 전에 기획된 것으로, 브라질 일본인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을 ‘한민족의 우수성’이라며 자부하고 있다. 반면 1908년 시작된 대브라질 일본이민사회는 2008년 이



2013년 리우 카니발에 등장한 한국의 청룡(靑龍)

민 100주년행사를 위해 1993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15년 동안 행사를 준비했다.

2) 기타 활동

개인적으로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조정덕 감독은 1956년에 브라질 땅에 발을 디딘 중립국포로, 즉 ‘반공포로’에 대한 영화를 찍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1983년 브라질 태생으로 교포2세 영화감독인 파울라(Paula) 은미 김으로, 현재 한국문화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 ‘브라질 한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제작 중이다.

2013년 1학기부터 상파울로 대학교 문과대학(USP-FFLCH)에 한국어 학과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첫 입학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담당교수는 임운정 박사와 박은영 박사이다.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 증폭과 한국기업의 브라질 진출 가속화는, 상파울루 소재의 여

러 고등학교가 3년 전부터,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 입학 국제자격 제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을 도입하여 따로 한국어 수업을 만들어 (영어로) 운영했다. 그런데, 2011년 초부터 한국어 과목이 특별활동 과목으로 신설되어, 전 상파울로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한 안경자 선생이 담당하게 되었다. 안경자는 현재 세인트 니콜라스(St. Nicholas) 국제학교와 명문사립학교인 푸에리 도무스(Pueri Domus) 고등학교에서 정식 한국어 과목 교사로 발령 받아, 주 5시간 한국문학(시, 소설, 수필 등) 수업을 하고 있다.

V. 높은 민족 응집력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

브라질 한인사회는 양재 산업이라는 한 가지 직종에 집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이민사회보다 한국어 사용이 높고 한국문화도 많이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교회와 성당을 통한 종교 활동과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스포츠와 취미 활동을 위한 단 체활동 역시 활발해서, 응집력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경제적 고립은, 어떤 측면에서는 브라질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한인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인회를 중심으로 브라질 연방경찰 및 정치인에게 로비하는 정치적 기술을 타민족에 비해 월등하게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브라질이 시장을 개방했을 때, 그들은 포르투갈어에 능한 권명호 변호사나 김철언 한-브 협회 이사장을 한인회장으로 추대하여 변화하는 브라질 상황을 대처하려 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첨예화된 볼리비아 봉제업자들과의 마찰도 연방경찰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봉헤치로의 마약과 치안문제 역시 제랄도 알크민 상파울로 주지사를 통해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⁵⁾

마지막으로, 브라질에서 제대로 고등 교육받은 한인 2세는, 한편으로는 브라질 주류사회로 진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패션과 의상을 전공하여 부모들의 가업을 잇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민 50년 만에 한인 2세의 교회출석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타인종과 결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인 2세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금좌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외래교수

5) 제랄도 알크민(Geraldo Alkimin) 상파울로 주지사는 2013년 1월 21일부터 “거리부랑자와 마약사용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을 목적을 둔 보호감호 조치를 한인 타운인 봉헤치로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